

2021 교보교육대상 시상식

2021 Kyobo Education Awards

2021년 11월 4일(목) 오후 3시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



교보교육재단은 ‘참사람’을 키웁니다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

교보교육재단은 ‘참사람 육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학, 인성교육, 리더십교육, 생명교육, 교보교육대상 시상 등의 공의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보교육대상 제정의 뜻

교보교육재단은 교육이 곧 ‘참사람 육성’이며, ‘민족의 미래’라는
大山 신용호 선생의 교육이념을 시대적 가치로 확산하고,
세계 최초 교육보험 창안과 교보문고 설립을 통해
국민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한 교보생명의 ‘국민교육진흥’ 창립이념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자 제정된 상입니다.

교보교육대상은 참사람육성, 창의인재육성, 평생교육, 미래교육콘텐츠 4개 부문에서 헌신해 오신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 시상하는 국내 최고의 교육상입니다.

2021 Kyobo Education Awards

식 순

개식

인사말

선종학 이사장

선정경과 및 수상자 발표

정유성 심사위원장

수상자 공적영상

교보교육대상 시상

참사람육성 부문

김현수(성장학교 별 교장)

창의인재육성 부문

김의성(보정고등학교 교사)

평생교육 부문

만세작은도서관(대표 오현정)

미래교육콘텐츠 부문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

수상소감

축하영상

폐식

인사말



2021 교보교육대상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수상자 및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년대계의 희망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분들과 심사위원장님 등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진행하게 된 점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이뤄지고 있으니 부디 내년 시상식은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는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 위기를 기회 삼아 대전환을 모색하는 분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 역시 희망의 마중물이 되어 오신 분들입니다.

참사람육성 부문의 김현수 교장선생님, 창의인재육성 부문의 김의성 선생님, 평생교육 부문 만세작은도서관 오현정 대표님과 운영위원님 그리고 미래교육콘텐츠 부문의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임성희 센터장님과 관계자님.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참된 사람을 키우고자 헌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보교육 재단은 위의 분들을 수상자로 모시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수상이 그 동안 묵묵히 정진해 오신 노력에 작은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곁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신 가족분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수상자를 선정하느라 애쓰신 정유성 심사위원장님을 비롯 예심·본심 열 여덟 분의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보교육대상은 앞으로도 국민교육진흥과 참사람 육성 가치 실현에 기여한 분들을 찾아 그 분들의 공적과 가치가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수상자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교보교육재단 이사장 선종학

수상자 선정경과

교보교육대상은 그 이름과 뜻에 값하고자 수상자 공모부터 선정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습니다. 제정 취지인 ‘국민교육진흥’과 ‘참사람 육성’ 가치 실현에 부합한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교육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항목과 평가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 시부터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021 교보교육대상 4개 부문에 개인 및 단체 등 총 1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교보교육 대상 심사는 부문별 예심, 현장실사, 통합본심제 순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예심은 12명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각 부문별로 진행하였습니다. 상의 제정 취지, 교육적 의미,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가려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본심 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어 예심위원과 사무국의 현장실사를 통해 공적사실 확인과 관계자들의 다양한 평판을 청취하였습니다.

본심은 전(全)부문 통합심사제로 심사하였습니다. 추천서류, 예심자료, 현장실사 보고서, 기타 활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에 희망을 주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격의 없는 토론과 투표를 거친 끝에 지난 10월 4개 부문의 수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수상자는 소정의 확정절차를 거쳐 오늘 시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1년 교보교육대상 수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사람육성 부문 대상(大賞) 김현수 성장학교 별 교장

창의인재육성 부문 대상(大賞) 김의성 보정고등학교 교사

평생교육 부문 대상(大賞) 만세작은도서관

미래교육콘텐츠 부문 대상(大賞)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심사평

교보교육대상 심사는 상의 제정취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해서 진행하였다.

첫째는 ‘국민교육진흥’과 ‘참사람 육성’이라는 교보교육대상의 핵심 가치에 잘 부합하는 활동을 했는가이다. 둘째는 각 부문별 수상취지에 얼마나 적절한 활동을 했는가를 평가했다. 셋째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냈는가 즉, 교육실천의 효과를 평가했다. 넷째는 현장실사를 통해 서면 상 공적과 실제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평가했다. 다섯째로는 교육활동이 얼마나 타의 모범이 되고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였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교보교육대상 심사위원들은 아래와 같이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참사람육성 부문> 대상 수상자 김현수 성장학교 별 교장은 정신과 의사로서 대안학교인 ‘성장학교 별’, ‘청년행복학교 별’을 세워 지난 20년 동안 헌신적으로 운영해 왔다. 무엇보다 정신의학뿐 아니라 프레네 교육철학 등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경계 및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치유와 자립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연관된 교사 및 부모교육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교육 활동에 애써 온 점은 본보기가 될 만한 큰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시대 단절과 고립에 처한 청소년과 암중모색 중인 교육현장에 바람직한 대안과 분명한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의미로서도 높이 살 만하다.

<창의인재육성 부문> 대상 수상자 김의성 선생님은 30년 가까이 교육현장에 몸담아온 과학교사이다. 창의인재의 핵심 영역인 과학교육, 특히 실험 교육에 힘써 많은 성과를 쌓아왔을 뿐 아니라 과학문화의 사회적 확산에 애써왔다. 무엇보다도 동티모르나 필리핀을 비롯한 지구촌 소외지역의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돋보인다. 국내 소외지역부터 지구촌 소외지역까지 곳곳을 아우르며 과학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은 창의인재의 핵심역량인 과학 기술력과 글로벌 소통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의 상징으로 기릴 수 있는 바,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평생교육 부문> 대상 수상자인 만세작은도서관은 고령화, 저출산으로 위기에 처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경기도 화성지역에 뜻을 모은 주부들이 만든 “만 명의 스승을 만나는 세상”이라는 뜻의 작은 도서관이다. 지역 수요와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학습 프로그램 구축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의 변화, 무엇보다 다문화 공동체의 구현 등으로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미 시작된 미래인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등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두루 본보기가 될 만하다.

<미래교육콘텐츠 부문> 대상 수상자인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국가주도의 공교육 체제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民)주도의 교육자치 및 자발적인 주민 교육 참여를 실험하고 정착시킨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지역에 관한 현장연구에서 비롯하여 학교-마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는 교육 전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교육 거버넌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공교육과 사교육을 매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민주적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 간 점은 교육 통합 모델로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적으로 올해 선정한 교보교육대상 수상자는 상의 제정 취지에 잘 맞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한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심사위원 모두가 기꺼운 마음으로 심사하였음을 밝힌다.

심사위원



예심위원

참사람육성

- 정창우(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류성남(서울국제고등학교 교장)
- 임석환(전 대구해운중고등학교 교장)

평생교육

- 심한식(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
- 고병현(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신민선(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

창의인재육성

- 이화성(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 이기범(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 진휘연(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교양학부 주임교수)

미래교육콘텐츠

- 구본권(한겨레신문 기자)
- 곽덕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홍섭근(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본심위원

- 정유성(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명예교수)
-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송재범(신서고등학교 교장)

- 양병찬(국립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윤건영(청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정민승(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참사람육성 부문 대상



김 현 수 (성장학교 별 교장/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

**프레네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돌봄-치유-영성의 선순환을 통해
청소년들이 참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기여**

교육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현수 교장은 치유적 대안학교인 '성장학교 별'을 설립, 20년 간 헌신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는 아픔을 겪는 여러 청소년, 청년들과 늘 함께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고립과 단절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치유와 자립에 도움을 주었다. 자발성과 협력의 프레네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상처입은 교사들의 심리회복에도 힘쓰고 있다. 김현수 교장은 교육-돌봄-치유-영성의 선순환을 통해 청소년들이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 2002** 치유적 대안학교
성장학교 별 설립
- 2010** 청년행복학교 별
(스타칼리지) 설립
- 2017** 서울경계인청년센터
아자라마 스페이스 오픈

— 수상소감 —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교보교육재단에서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심은 이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 겸손하고 지혜롭게 앞으로 주역이 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봉사하라는 뜻이라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20여년 전 치유적 대안학교 별을 시작할 때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 이유로 힘든 세상을 만난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 보다 좋은 세상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안타까움과 만용으로 학교라는 이름을 감히 쓰면서 당시에는 치유적 대안학교 별이라 부르던 학교를 사람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거창하게 교육, 복지, 치유, 영성의 네 품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아 따뜻한 기운 속에서 새롭게 희망을 갖고 소생해서 다시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학교가 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작지만 그런 학교를 만드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열망에 빠져 함께 했던 초기 선생님들 이은재, 배영미 선생님 등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했습니다. 바쁘고 성급한 마음으로 시작하여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애석한 순간들이 참 많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고, 학생이 늘어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면 공간을 만들자고 우물을 파서 돈을 길어 올렸고, 길이 없으면 새 길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길을 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돌아보니 20년이 지나있네요.

그간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었고 와신상담, 절치부심한 적도 있으며, 깊은 상처가 나도록 싸운 적도 있고, 갈라서서 다시 보지 않으리라 한 적도 있고, 어찌하다 짊은 날에 병을 얻어 함께 일하다 먼저 다른 세상으로 간 동료교사도 있었고, 개교 이후 너무 나도 힘든 자신들의 삶이 고통스러워 세상을 먼저 떠난 졸업생도 한 둘 있었습니다.

청소년 학교에 이어 청년학교를 시작하고, 청년이 되어 세상에 나가 일터를 꿈꾸나 일터에서 전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과 시간이 필요해서 꿈의 작업장을 마련해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름만큼은 이보경, 노수진 선생님 등의 제안으로 오색찬란 사업단을 만들었고, 선소영, 안지은, 박민정 선생님 등과 함께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사업장을 만들자고 하여, 아자라마 사업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돌봄에서 치유로, 치유에서 교육으로, 교육에서 자립으로, 그리고 삶을 향하여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깃발을 들고 걷다, 뛰다, 쉬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은 한 매듭을 짓는 날이겠지요? 어떤 매듭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보교육대상이 그 매듭을 잘 맺어주시는 것 같아 너무 기쁠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더 겸손하게 성찰하면서 다음 단계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돌봄, 치유와 영성의 가치를 통합하고 현명한 행복의 가치를 찾아 우리 교육 공동체와 더 깊은 만남과 대화를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의인재육성 부문 대상



김 의 성 (보정고등학교 교사)

과정 중심 실험으로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지구촌 소외 지역 과학교사 연수를 실천해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김의성 과학교사는 과정 중심 탐구 실험으로 창의력과 자기주도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데 힘써왔다. 부임하는 학교마다 실험실을 재정비하고 블록타임 실험 수업을 실시해 청소년들이 작은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국내외 과학교사 연수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동티모르,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 과학교사 연수에 13년 간 참여하여 지구촌 나눔 활동에도 기여하였다. 김의성 교사는 창의적 인재를 키울 뿐 아니라 교실을 넘어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학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 2012~2016** 블록타임을 통한
과정중심 탐구실험
수업
- 2007~2019** 동티모르, 필리핀, 탄자
니아 과학교사 연수
(과학실험) 나눔 활동
- 2017~현재** 보정고등학교 교사

수상소감

“교육은 삶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체험하는 경험의 부단한 재구성”이라는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을 지향합니다. 또한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과 ‘잠재적 교육’이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큰 영향을 주어 학생들의 행동 변화에 지적 영역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은 지식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교육관입니다.

교직에 들어오기 전 7년 동안 대학 실험실 근무와 연구소 경력을 가지고 있





습니다. 이 기간은 초등학교 자연 과목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과학교육을 받고 그 배운 과학지식이 과학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총체적으로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이 경험으로부터 과학교육(화학교육)의 핵심역량은 실험 교육(탐구실험)이라는 교육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입시 위주의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탐구실험 교육 강화를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은 과학자의 경험’을 하는 ‘블록타임을 통한 과정 중심 탐구실험 수업’을 실천한 5년은 고단했지만, 학생들도 저도 어느 때 보다 성취감이 높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머리가 늘 아프다며 결석이 잦던 L은 화학실험 수업이 있는 날만은 절대로 결석하지 않았고 화학 교과만 유일하게 흥미를 보이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L이 결국 K대 화학과로 진학하여 지금은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방학마다 진행한 개발도상국 과학교사 대상 연수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있는 작은 강줄기를 이루었습니다. 때로 교육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 내면적 갈등이 깊어질 때면 이 활동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가난한 나라에서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배움은 감사며 기쁨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교직에서 흔들리는 저를 붙잡아 주곤 했습니다. 그간의 활동으로 지구촌 곳곳에 동료 교사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교육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의식이 저를 여러 곳에 기웃거리게 했고, 경험하게 했으며, 행동하게 했습니다. 저를 성장시킨 것은 학생, 교육 현실, 호기심 그리고 교과연구회 동료들이었습니다.

‘교육이 민족의 미래’라는 교보교육대상의 가치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이 상에 걸맞은 선하고 의미 있는 한 가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 부문 대상

만세작은도서관 (대표 오현정)



- 2015 만세작은도서관 개관
- 2019 세계로다문화마을학교 지정
- 2020 다을공동체센터 활동 시작

맞춤형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주도 학습문화를 만들고,

다문화 특화 평생교육을 개발해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내 위치한 만세작은도서관은 '만 명의 스승을 만나는 세상'이라는 뜻의 작은도서관이다. 지역민 대상 맞춤형 평생학습체계를 구축, 주민 주도의 학습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문화사랑방, 만세책꾸러미 등의 평생교육으로 전통시장 내 인문학 열풍을 불러 일으켰으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문화 특화 평생교육 개발에도 앞장섰다. 만세작은도서관은 지역 확장성을 기반으로 마을의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수상소감

안녕하세요. 수상소감으로 만세작은도서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향남읍에 위치한 평리는 인근에 신도시가 생긴 이후 조금씩 쇠락해가던 작은 마을로, 타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하여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마을문화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2014년 겨울, 엄마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민은 이듬해 작은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5월





27일 행정의 주도가 아닌 주민들의 주도로 만세작은도서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세작은도서관은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공간을 조성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온전히 우리의 손으로 일군 배움터입니다. 저희의 슬로건은 ‘만 명의 스승을 만나는 세상’입니다. ‘온 마을과 다양한 세상이 스승’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지요. 저희는 평리라는 마을 전체를 학습의 공간으로, 평생학습의 장으로 일구어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위해 엄마들이 직접 그림책 공부를 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갈등관리를 배우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인 마을이기에 세계시민과 민주시민을 주제로 학습과정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평생학습마을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들, 다문화 아이들,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의 보여준 배움의 열정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꽉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심사위원들께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따뜻한 가치로 일구어낸 저희 도서관을 평생학습의 좋은 모델이라 생각하시고 높게 평가해주신 듯합니다.

만세작은도서관의 시작은 작았지만 지금은 화성시 서남부 권역 평생학습의 한 귀퉁 이를 책임지는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교보교육재단과 같이 지역의 평생학습에 보탬이 되고자 애쓰는 곳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생학습과 더불어 문화 예술까지 연결되는 만세작은도서관의 ‘행복한 10년’을 꿈꿉니다. 교보교육대상에 걸맞게 참다운 가치를 지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세작은도서관 김소연 오현정 홍성순 하옥란 강보윤 강장선 조정아 이상 아름다운 7명은 아름다운 가치를 널리 확장하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콘텐츠 부문 대상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임성희)



사례에 근거한 연구와 실행을 바탕으로 교육 문제에 공동대응하는 ‘교육통합 모델’ 콘텐츠를 개발, 실천하면서 지역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는 지자체와 교육청을 연결하는 민간 중심의 교육 전담 중간지원조직이다. 지역 교육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교육통합 모델’을 개발, 실천하고 있다. 교실수업을 재구성하고 198개 학교-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앞장섰다. 또한 학부모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해 학부모 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였다. 지역소멸 위기 속,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는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배워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201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공헌
- ~2013** 연구 및 교육통합모델 제시
- 2014**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개소
- 2018** 완주혁신교육 성장보고 2.0

수상소감

우선 이 길을 열어주신 완주군과 추천해주신 완주교육지원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교보교육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스럽고 귀한 상을 주시니…
이런 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빌어 고백하자면
저의 아이와 긴 사투의 시작이 운명처럼 왔고.
지자체의 제안이 숙명처럼 제게 왔습니다.

학교의 귀한 교사가 있었고
아이들이 저를 눈뜨게 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받는 관심에 안타까울 정도로 집착하는
아이들이 더욱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제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난한 시간에 묵묵히 곁에서 밀어주신
지역사회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 함께 해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여 ‘되어가는 존재’로서 반성할 수 있었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혼자가 아닌 ‘같이’ 라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주는 격려’이면서
‘함께 한 우리에게 주는 따뜻한 교보교육재단의 시선’이라
여기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역대 교보교육대상 수상자





교보교육대상 상패는

생명과 희망의 소중함을 담은 곡옥(曲玉)과 영예를 상징하는 월계수를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그린디자이너로 유명한 윤호섭 국민대학교 명예교수가 디자인하였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2021 Kyobo Education Awards

교보교육재단은
‘참사람 육성’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니다